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한 결 교 회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개역개정]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표준새번역]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2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한결같은 교회, 한결 더 나은 교회
 춘천시 삭주로 154 [우편번호 : 24234]

청결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1)

마태복음 5:1~12(팔복강해 19)

청결한 마음은 저절로 얻거나 연습으로 따내는 게 아니다. 또한, 이 교훈 중에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과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까? 죄로 얼룩진 마음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을뿐더러,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바꾸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청결한 마음은 거듭난 새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로 거저 베푸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게끔 그의 ‘중심과 내면’은 물론이고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마치 예수께서 맹물로 성질이 전혀 다른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부패한 죄인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꾸시는데, 기독교 교리는 그것을 가리켜 ‘중생(重生) 혹은, 거듭남’으로 일컫고, 더불어 성경은 그것을 ‘첫 창조’와 맞먹거나 그보다 더욱 탁월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재창조(Re-creation) 혹은, 새 창조(New Creation)’로도 부른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및 새 것을 만드신 사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사건. 이것 역시 ‘구원과 구원받음’을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늘로 일컫는 그 세계에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 속에 한 알의 밀알처럼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각은, 오로지 거듭난 새 사람에게 허락하신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둘째, 청결한 마음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마음

신구약 성경은 ‘마음의 부패와 망가짐’의 원인을 “죄”로 지적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소와 양 같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 피를 흘리고 고기를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처럼 인간의 죄와 허물을 그 짐승에게 떠넘겨서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조치하는 것이, 제사제도의 기본원리이자 제물을 바치는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의 마음은 수백만 마리의 짐승 제물로도 씻지 못할 만큼 더러울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와 그 고기 제물의 효력은 일시적이지 일시적인 까닭에,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의 더러운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제물’과 영원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 깨끗한 마음”은 예수님의 희생과 그 핏값을 통해 얻는 하늘의 선물임을 명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청결한 마음과 함께, 예수의 피로 씻은 깨끗한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갈망하고 사모했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된 새 마음”만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얻은 “청결한 마음”을 잘 간직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그 마음을 단련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임을 일평생 증명해야 마땅하다. 혹시, 이 복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다윗처럼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그 마음에 하늘의 의를 채우고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축원한다.

- 성경 본문과 설교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을 떠올리고 나뉘보자.
-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 거듭난 새 마음을 창조하는 일은 무엇과 맞먹는 일인가?
-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 죄인을 위한 예수의 피(희생. 공로)는 어떤 효력을 지니는가?